

정신대 국제사회 여론화 해외한인들 노력해야

「대책協」세미나 유엔에 알려 일본의 보상·사죄받아야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이 10만~20만에 이르는 한국여성들을 일본 군인의 성적노예로 징집, 착취, 학살한 반인도적 범죄를 세계의 양심에 고발하기 위한 미주지역 모임이 20일 LA의 영락교회에서 열렸다.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회장 윤전이화여대 교수)의 이같은 사회여론 환기를 미주지역에서 지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5일 결성된 미주정신대 대책협의회(CAMSS)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3시간씩 두차례 실시되어 「정신대, 무엇이 문제인가?」 「정신대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점검」을 논의했다.

연사로 나온 윤정옥회장은 정신대 문제가 국제사회에 여론화되어야 하는 개괄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특히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패전 후의 잔학한 처리방법을 실례를 들어 고발하면서 진상규명과 도의적 사회들을 포함한 6개항의 요구

조항을 일본정부가 받아들여도록 해외 한인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대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주제강연을 한 박원순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가 65년의 한일협정시 모든 피해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일본법정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지만 일본 사법부가 이를 공정하게 다루려 없어 승소가 능성도 사실상 희박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 한국정부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유엔의 회원국으로

서 국제 사법재판소나 유엔 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일본의 사죄와 실제적보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해외인들의 단결된 의사표시를 요청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1백여명의 한인, 일본인, 미국인, 필리핀인들이 이청명서에 서명했으며 관계자들은 22일 UCLA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하와이 등지에서 열릴 모임을 통해 8월까지 총20만명의 해외인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연락처 (213)387-1698 김인자변호사, (310)208-2341 조성은

<이정인 기자>

주택·도로침수 곳곳 폭우피해

18일부터 내린 폭우로 티화나지역에서 2명이 물에 빠져 숨지고 남가주 곳곳에 도로가 침수되어 운전자들이 심한 고충을 겪었으며 남가주지역 수백명의 주민들이 주택침수의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빅터빌 외곽지역에 위치한 스프링 밸리 레이크지역에 19일부터 모하비 강이 불어나면서 주거지역을 위협해 20일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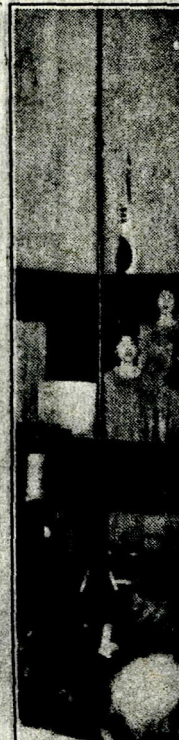


▲정신대문제를 국제문제화시켜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는 미주지역의 세미나에서 윤정옥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 회장(사진 맨오른쪽), 박원순변호사가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범죄반대 단축마라톤 盛了

한인등 6백여명 참가

설로 참석한 이날 대회에선 로열국민학교 6학년인 강신현(11)과...



친선

LA 코리아타운 한국 문화원 가열회가 후원한 지난 20일 창단과 관람한 가운데 열렸다.

한·흑간의 합및 서로간의 해시키기 위해에는 한국의 (수원)과 L 흑인교회인